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67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1)우도편

입력 : 2003. 10.08. 00:00:00



1996년 7월 북한의 황소 한마리가 집중호우로 경기북부 비무장지대에 떠내려온 일이 있었다. 경기도 김포시는 이 황소를 구조해 '평화의 소'로 명명해서 기르던 중 국토의 최남단 북제주군이 보낸 암소 '통일염원의 소'와 맺어주었다. 그후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렸던 2000년 1월 1일 제2세 숫소가 '새천년 평화통일의 소'라는 이름을 달고 소섬인 우도로 오게 되었다. '평화통일의 소'에는 국민화합과 조국의 평화통일 염원은 물론 제주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는 큰 뜻이 담겨 있었다.

한라산학술대탐사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의 첫 탐사가 9월 20일 제주섬 동쪽 끝자락 '평화의 섬' 우도에서 시작됐다. 대맥 탐사의 종착지가 차귀도라면 우도는 출발지이다.

우도로 향하는 바닷길은 가을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도항선에 올랐으나 목적지인 우도항에 닿지 못하고 제주 본섬 종달리를 이어주는 하우목동항에 이르렀다. 종달과 우도는 해수면의 상승하기 전 내륙으로 이어졌었다는 연속설을 실감케 할 만큼 지척이다. 직선거리가 불과 2km로 우도 동서의 길이(2.5km) 보다는 짧다.

탐사단은 소머리오름 우도봉(우두봉)으로 향했다. 우도봉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산신제를 올렸다. 오현 산악동호회 임원들도 출발부터 탐사에 동행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도봉에 오르면 황홀한 초록빛 거친 물결이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한다. 제주 본섬 쪽으로는 멀리 한라산을 위시하여 성산일출봉, 지미봉, 둔지오름, 다랑쉬오름, 높은오름 등 오름군이 한눈에 들어온다. 우도 도항의 관문인 천진동에서 한라산과 오름군을 바라다본 정경이 우도8경중 하나인 '천진관산'이다. 한라산을 창조했다는 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 우도에서 치마폭에 흙을 싸고 가다가 떨어뜨려 만들어졌다는 오름들이다. 앞으로 탐사단이 모두 답사할 예정인 오름군이다.

"우도는 섬 전체가 오름의 남쪽에 위치한 정상부(표고 132.5m), 즉 소의 머리 부분에서 북쪽의 소꼬리(세비코지, 표고 4m) 부분을 향해 완만하게 낮아지는 지형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탐사위원 정광중교수·인문지리)

“우도는 물형(物形)의 지세로 보면 와우형이다. 와우형은 소가 누워 머리를 든 형상이다. 우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빼어난 자연환경과 우도봉으로부터 출맥하는 기가 섬 전체를 안듯 흐르고 있다. 그러나 우도의 정수리인 섬머리 정상이 공적인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깎이고 파헤쳐지며 훼손되고 있어 아쉽다.”(탐사위원 신영대교수·풍수지리)

우도봉은 이중화산이다. 중앙화구구인 알오름(표고 87.5m)은 정상부까지 묘지로 조성돼 있다. 우도 공동묘지다. 알오름 바로 옆에는 빗물을 가둬두는 저수지가 위치해 있다. 화구 안에는 저수지로 향하는 물길이 만들어졌다.

탐사위원 고정균박사(한라산연구소)는 “우도봉 일대는 잔디와 새, 참억새 등이 우점하는 초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지난 50년대 이후 조림된 해송군락이 분포하지만 강한 바람과 해수 등에 의해 생육은 양호하지 않다”고 했다.

우도봉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땅콩 등의 재배를 위한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우도는 경지가 71%, 임야는 15% 뿐이다. 헌종8년(1842년)에 우도와 가파도에 대한 입경허가가 있을 후 헌종 10년에 진사 김석린이 벼슬을 그만두고 이곳에 정착한 것이 우도의 개척시원이 되었다고 한다.

단애가 형성된 화구륜을 따라 검멀레 해안에 이르렀다. 검은 모래가 인상적인 이 곳에 ‘콧구멍’이라고 하는 ‘동안경굴’이 있다. 성악가 현행복선생이 국내 최초의 동굴음악회를 열었던 곳이다. 이중동굴로 이루어진 이 곳은 썰물때만 입구를 찾을 수 있다. 김완병 탐사위원은 “검멀레 절벽에서 어미 가마우지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상기된 표정이다. 탐사단은 검멀레 주변 민박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인 21일 해안도로를 따라 일주에 나섰다. 우도는 섬 둘레가 약 17km에 이르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도봉 단애구간을 제외하고는 해안을 따라 도로가 개설됐다.

검멀레 해안을 지나면 제주에서 가장 처음 아침 해를 맞이하는 마을, ‘조일리(朝日里)’다. 조일리에는 영일(迎日)동과 비양(飛陽)동 2개의 마을이 있는데 모두 제주의 아침을 여는 마을들이다. 비양동 마을 바로 앞에 ‘비양도’가 위치하고 있다.

신영대 위원이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제주도에는 옛날부터 양쪽 날개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동비양과 서비양이라 한다. 옛 제주의 선인들은 제주도를 하나의 큰 섬으로 여기어 동쪽 날개는 우도의 비양도로 생각했고 서쪽 날개는 한림읍에 있는 비양도로 생각한 것이다.”

비양도와 해안도로를 따라 우도의 아낙들이 감태말리기에 한창이다. 감태가 약재와 미용재로 쓰임새가 많아 몇 시간 작업으로도 수십만원의 수입을 거뜬히 올린다. 일부 주민은 “감태가 짭짤한 수입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복 등 바다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도 된다”며 “마냥 즐거워해야 할 일만은 아니다”고 쓴소리했다.

우도의 꼬리쪽인 오봉리 전흘동은 일제때 해녀운동을 지도하는 등 항일운동에 나섰던 강관순의 저항정신이 흐르고 있다. '한라대맥' 탐사단이 찾고자 하는 제주정신의 맥(脈)이 우도에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강관순은 2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옥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원산으로 건너갔으나 1942년 함북 청진에서 고문과 옥고에 시달린 후유증으로 병사했다. 그는 옥중에서 '해녀의 노래' 4절을 지어 널리 불려졌다.

강관순의 묘소가 현재 우도 전흘동 경작지에 남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독립유공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특별취재팀

[사진설명]탐사단이 우도봉 정상을 지나 '검멀레' 해안으로 향하고 있다. 멀리 우도등대가 보인다.

[전문가 리포트]강관순 등 항일해녀투쟁에 영향

우도는 해 떠오르는 제주도 동쪽의 시작이며, 한라산을 향해 꿈틀대며 나아가는 소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탐사반은 한라대맥의 시작을 알리는 고사를 소머리오름에서 올렸다.

우도에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 23년(1677) 목장이 설치되면서부터였다. 이후 19세기 초부터 이어진 주민들의 우도 개간 요청에 따라 헌종 8년(1842) 목장을 없애고 비로소 개간이 이루어졌다. 자연스레 사람들이 섬으로 이주 정착하게 되었다. 인구는 점차 늘어, 1903년 조사한 우도의 인구는 6백79명이었다.

우도 사람들에게 생업 터전은 농사짓는 땅보다는 바다였다. 우도 근해는 한국 제일의 해조류 산지로서, 양질의 우뭇가사리·미역·감태 등이 다량 생산된다. 섬 전체가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심이 깊고 해저가 암반이기 때문이다. 1932년 당시 우도 해녀 수는 5백13명으로, 마을별 수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았다.

해녀 많은 곳에서 일제에 저항한 해녀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더불어 해녀들에게 야학을 실시하고 민족의식을 불어넣은 신재홍·강관순·김성오 등 선각자들이 우도에 는 있었다.

강력한 항일의식이 배어있는 '해녀노래'를 옥중에서 작사한 강관순은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함경도에서 숨을 거두었다. 탐사반이 찾아간 무덤에는 비석조차 없어 아쉬움을 더했다. 한라산을 향한 그의 무덤에서 명예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제주인의 기상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 한라대맥 탐사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인접 마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제주정신의 맥(脈)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우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며 이번 장정(長征)에 나서는 굳은 각오를 해보았다. <박찬식 역사학자·문학박사·역사>

[전문가 리포트]개발에 신음하는 제주 생명체 진단

제주도는 육지에서 약 천여리를 두고 남쪽 바다에 돌기한 국내 최대의 섬이며 동서가 약 사백리, 남북이 약 이백리로 지형이 둥그스름하고 길어서 마치 달같은 형상과 같다.

한라산맥이 높고 낮고 일어나고 엎드린 듯한 고저기복(高低起伏)이 출중하여 풍경이 아름답고 기맥이 잘 발달된 곳이다.

한반도의 두 번째로 높은 1950m의 화산폭발에 의해 이루어진 신비한 영산이며 산정의 높고 빼어남이 푸른 하늘을 만지는 듯 하다.

한라(漢拏)라고 부르는 것은 은하(은한·銀漢)를 끌어당길만한 높은 산이기에 붙여진 말이다. 혹은 높으면서 둥글어 원산(圓山)이라고도 하고, 봉우리마다 평평하여 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한다. 산 전체에 우거진 숲과 괴암괴석과 천형만학(千形萬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영주산이라고도 일컫는다.

따라서 한라대맥 종주탐사를 통하여 제주인의 삶터를 제대로 알고 영원한 생명체인 한라산의 진가를 밝혀냄으로써 경제의 논리에만 매여 개발이란 미명아래 중산간, 해안, 오름 등을 무자비하게 파괴를 일삼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인체에 심장이 박동하듯 산하의 곳곳에 기혈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인체에 비교하여 생명학적으로 탐사하는 것은 이번 학술탐사 중의 중요한 풍수학적 목적이다.
<신영대 제주관광대 중국어통역과·풍수지리>

[대맥에서 만난 사람]해녀의 노래 지은 강관순의 딸 길여씨

◇“아버지 명예 회복되면 여한 없지요”

“고통속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회복만 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우도 북쪽 끝자락인 오봉리 전흘동에는 일제때 해녀시위운동 지도 등 항일활동을 하다 병사한 강관순의 유복녀 강길여씨(61)가 살고 있다. 탐사단이 그녀의 자택과 선친의 묘소를 찾았다. 강관순이 해녀운동을 지도했듯이 그녀도 해녀다. 선친에 대한 각종 자료를 꼼꼼이 챙겨온 강씨는 부친을 회고하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다.

“병사하신 때가 아버지 나이 35세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시기와 주요 활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올해에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인고와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강관순은 1932년 1월부터 구좌지역 해녀항일운동이 일어나면서 일경에 체포되어 1933년 대구

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강씨는 “아버지가 청진에서 병사하자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장례를 치른 이후 생전 정열을 지키며 가정을 일궈왔다”고 회고했다.

그가 옥중에서 남긴 노래가 ‘해녀의 노래’다. 이 노래는 전도에 파급되고 출가 해녀에 의해 한반도 및 일본 중국까지 전파되어 당시 제주의 노래로 불려졌다. 1996년 여름 우도의 선착장에는 그가 남긴 해녀의 노래가 우뚝 서 있다. /강시영기자

['한라대맥을 찾아서' 탐사단]

◆단장 / 강문규(편집국장)

◆탐사위원

오문필(산악/제주대산악회장·매킨리원장대장)

정광중(인문지리/제주교대 교수·이학박사)

박찬식(역사/4·3연구소 위원·문학박사)

강영제(식생/제주임업시험장·박사과정)

김태호(지질/제주대 교수·이학박사)

고정군(식생/한라산연구소팀장·이학박사)

신영대(풍수/제주관광대 교수·박사과정)

정차연(지질/농기공제주본부·이학박사)

김완병(조류/도민속자연사박물관·박사과정)

◆특별취재팀

한승철(기획특집부장·팀장) / 강시영(" 차장)

이윤희(" 차장) / 강경민(사진부 기자)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